

제 8차 캄보디아 원조공여국 회의

I. 보고 요지

- 향후 5년간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율성 증대를 주제로 3.2(목)~3.3(금)간 캄보디아에서 세계은행과 캄보디아 정부 공동주관으로 제 8차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되었음.
- 금번 회의에서는 원조공여국과 주재국 정부가 공동개발한 NSDP 2006~2010의 이행 전략인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및 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공동 모니터링 지표(Joint Monitoring Indicator 2006)가 채택됨.
-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총 601백만 불의 원조 공약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2004.12월 제7차 회의 시 공약된 총 501백만 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임.
 - 우리는 향후 2~3년에 걸쳐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 총 2개 사업에 차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39.5백만 불, 연평균 15백만 불 수준), 무상원조 7백만 불, NGO 3백만 불 등 총 25백만 불의 지원 의사를 밝힘.

II. 회의 결과

- 표제회의가 3.2(목)~3.3(금)간 세계은행 및 캄보디아 정부 공동주관으로 Hun Sen 총리, Sok An 부총리 겸 관방부장관, Keat Chhon 재경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캄보디아 정부 대표단과, 총 12개 원조 공여국(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5개 국제기구(세계은행, ADB, IMF, UNDP, EU), 6개 옵저버국가(러시아, 폴란드 등), NGO 및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개회식 연설요지

가. Hun Sen 총리(기조연설)

- 2004.12월 제7차 원조공여국회의 개최 이후 달성한 성과 및 향후 추진할 정책 목표를 소개하고, 동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함을 역설함.
 - 특히 캄보디아의 지속적 성장과 개혁을 위해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함.
- 한편 동 총리는 현행 원조 매커니즘을 재평가, 원조 효율성 증대를 위해 18개TWG(Technical Working Group)와 고위급 GDCC(Government - Donor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기존 원조 공여국(CG) 회의를 GDCC로 대체하는 등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Ian Porter 세계은행 대표는 지난 제7차 회의 이후 각 의제별 진전사항과 당면과제를 소개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여국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에 맞춰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다. Keat Chhon 재정부장관은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 및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빈곤퇴치 및 성장을 위한 부패근절, 부채 탕감의 중요성을 역설함. 특히 IMF와 중국정부의 부채탕감 조치에 사의를 표명하고, 각 분야별 주재국 정부의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시함.

2. 의제별 토의사항

가. 의제 1 : 최근 경제사회 개발성과

- 캄보디아 정부측은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 및 재정안정, 금융시장 발전 및 빈곤퇴치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개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함.
- 이에 대해 IMF 대표는 캄보디아의 고도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공여국 및 캄보디아 정부가 향후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부채 탕감으로 인한 추가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농업생산성 강화,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투자 등을 촉구함.

※ IMF는 캄보디아에 대해 1993년 이전 부채 8,200만 불을 탕감

나. 의제 2 : 국가전략개발계획 및 공공투자프로그램

- 캄보디아측은 사각전략의 구체 실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CMDG)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제시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 및 동 전략지원 3개년 계획인 공공투자프로그램(PIP 2006~2008)을 소개하며, 원조 공여국들이 동 NSDP 및 PIP에 맞춰 원조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해, ADB측은 파리선언에 따라 원조 공여국들이 NSDP에 맞추어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캄보디아 정부 측에 자체재원 확보

에 더욱 노력하고 세계은행의 빈곤평가보고서에 따라 NSDP의 세부계획, 동 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 수립을 촉구함.

다. 의제 3 : 2005년 공동모니터링지표 평가 및 2006년 지표 채택

- 캄보디아 정부 측은 2005년 공동모니터링지표 평가 결과가 반영된 총 12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공동모니터링지표(JMIs)를 제시함 (상세 별첨 3 참조).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지난번 회의에 이어 캄보디아의 부패를 “disease, plague, cancer”에 비유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강력한 반부패법 제정 등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프랑스 측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 2004년 12월 공동모니터링지표로 설정되었던 8개 기초법안의 조속 입법을 요구함.
- 덴마크 측은 행정 분야 개선 관련, 지표 달성을 위해 관련부처의 공조 및 정책결정권자의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세계은행은 공공재정개혁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함.
- 독일 측은 천연자원 관리 및 농업분야 개혁과 관련, 토지 및 광산 소유권 허가에 대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소유권 집중을 통한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함. 또한, 농촌 빈민들의 토지 확보를 위한 불법벌목이 산림훼손 및 지력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림 및 농업을 포괄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요구함.

손 및 지력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림 및 농업을 포괄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요구함.

- 한편 일본 측은 농업개발과 수자원 관리를 연계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함.

라. 의제 4 : 원조효율성 증대

- 캄보디아 정부 측은 파리선언 및 로마선언에 따라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달성한 성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향후 공여국측 또한 원조 수행 시 캄보디아의 주인의식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함.
 - 원조 조화와 일치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
 - 개발협력 관리를 위한 전략적 틀 채택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한 관련 정보 공개
-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기존의 공여국-캄보디아 정부간 조정 매커니즘 (Consultative Group Meeting, Government-Donor Cooperation Committee, Technical Working Group)을 강화하는 한편, SWAp (Sector Wide Approach)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3. 우리측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파트너들이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우려와 제

안에 동감하며, 주인의식 제고 및 원조효율성 증대를 위해 캄보디아측이 추진하는 NSDP/PIP 이니셔티브 및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원조 공약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국도 3번 개보수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차관지원과 함께, KOICA의 무상협력사업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랑폰리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2~3년에 걸쳐 신규차관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 아울러 KOICA를 통한 국립소아병원 현대화,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각종 무상협력 추진을 위해 2006년도에 약 7백만 불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에 약 300만 불의 별도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회의 종료 후 캄보디아 실무자의 2006년도 지원 예정액 제시 요청으로 아래 산출근거에 따라 총 25백만 불 규모로 제시

- (국도 3번 1,200만 불/2년) + (수자원개발 2,700백만 불/3년) + (KOICA 무상협력 7백만) + (NGO 3백만 불)
= 총 2,500만 불

4. 2006년도 각국 원조 공약 현황

가. 각국의 원조 공약에 앞서 Keat Chhon 재경부장관은 PIP 2006~2008 추진에는 NSDP 2006~2010 전체예산 규모의 약 56.5%인 총 1,975백만 불이 필요하며 (2006년 600백만

불, 2007년 650백만 불, 2008년 725백만 불), 캄보디아 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초과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지원요청액 : 2006년 513백만불,
2007년 633백만불,
2008년 578백만불

나. 금번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는 총 601백만 불의 원조공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4년 제7차 회의 당시 공약된 504백만 불에 비해 97백만 불이 증가된 금액으로, 캄보디아 측이 지원 요청한 513백만 불을 56백만 불 초과하는 규모임.

다. 금번 회의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공약한 원조 금액은 아래와 같음(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2006년 지원 공약 금액으로 임의 산술 집계한 수치)

■ 주요원조공여국

- 일 본 : 총 115백만 불
- 미 국 : 총 61백만 불
- 프랑스 : 총 39백만 불
- 호 주 : 총 32백만 불
- 스웨덴 : 총 22백만 불
- 덴마크 : 총 14백만 불
- 캐나다 : 총 10백만 불

■ 국제기구

- EU : 총 164백만 불(무상)
- UN : 총 58백만 불
- WB : 총 53백만 불

III. 관찰 및 평가

1. 금번 회의에서는 주재국 정부의 5개년 NSDP 2006~2010 및 공공투자프로그램 (PIP 2006~2008)이 발표되었으며, 동 NSDP 및 PIP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2006년도 공동모니터링 지표 (JMIs)가 확정됨.

■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들은 캄보디아가 달성한 경제성장 및 개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부패 퇴치, 천연자원 관리 및 농업분야, 공공재정개혁 및 사법제도 개혁문제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미국은 향후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개혁추진 성과와 지원 규모를 연계하여 실제 지원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2005년도에 총 63백만 불(USAID를 통한 지원액 57백만 불 포함) 지원

2. 한편 캄보디아 정부측은 그간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어온 그간 3차례의 원조공여국(Consultative Group ; CG) 회의가 원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정역할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고위급 정부-공여국간 조정위원회(GDCC)로 대체하는 메커니즘 개선을 선호하고 있음을 밝힘.

- 차기 원조공여국회의는 2007년 6월 당지에서 개최 예정

3. 또한 캄보디아측은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추

진 중인 남서부 해안 유전개발 (미국 Chevron 이 주도), 중북부 광물자원 개발(중국이 주도) 등 민간투자유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회원국의 신규차관 제공에 의한 철도 및 도로 건설 지원 용의 표명 등에 고무되어 과거 유럽(EU) 미국 눈치를 보던 입장에서 탈피,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었음.

4. 대부분의 원조공여국들은 파리선언 등에 입각하여 캄보디아 개발전략 수립 및 이행과정 참여를 통해 각 분야별, 주제별로 특화된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도 주재국 원조 매커니즘에 적극 참여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 있는 원조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특이사항

1. 일본측은 당지 주재 대사를 수석대표로 JAICA 직원을 포함 총 6~7명이 참석하였으며, Pledge Session에서 2005년도 실제 지원실적이 당초 공약 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2006년도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없이 예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만 밝힘.

■ 또한 캄보디아 정부측이 기술원조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측은 특정기관(CDC를 의미)의 편견이 아닌지 문의하

고 현재 일본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매년 약 50~60명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술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의 대캄보디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2. 특히 EU 국가 대사들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회의장을 떠나 복도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캄보디아 정부측이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수원(受援)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특히 각종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단속(인사조치 포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입장을 표명함.

3.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도 첫날 상기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사전 참석통보를 하지 않아 일반 참가자와 함께 뒷자리에 착석하였으며, 추후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회의 이틀째부터 우리 대표단 좌석 옆에 국가 명패와 함께 자리를 준비하였으나 참석하지는 않았음.

4.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상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옴저버)을 제외한 여타 ASEAN 회원국들도 참석하지 않았음.

[자료: 주캄보디아 대사관]